본교 교수 4명 정년 퇴임

지난 8월27일 퇴임식 거행되기도

〈이규종 교수〉

〈한병구 교수〉

〈유재봉 교수〉

〈배태영 교수〉

지난 8월31일자로 본교 교수 4명이 정년퇴임하였다.

이에 앞서 8월27일 오후2시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전체교수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년퇴임식이 진행되었다.

정년퇴임한 교수는 이규종(정경대·정치외교학)교수, 한병구(정경대·신문방송학)교수, 유재봉(사범대 교육)교수, 배태영(외대·영어영문학)교수 등으로 다년간 본교에서 재직하였다.

이규종 교수는 34년여 동안 본교에서 재직하였으며 신문방송국장, 사무처장, 출판국장, 신방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병구 교수는 26여년의 재직경력과 신문방송국장, 학생처장, 정경대학장, 신방대학원장 등의 많은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유재봉교수는 재직기간이 31년으로 사범대학장을 역임, 총 31권의 교육에 관한 저서를 집필, 출간하고 19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우수한 연구실적을 갖고 있다.

배태영 현 수원캠퍼스 부총장은 경희 호텔전문대 부교수로 10여년, 본교에서 11여년을 재직하였으며 외국어대학장을 역임하였다. 퇴임 교수들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정년 퇴임 교수 프로필〉

이규종(정경대교수·정외)

▲출생:1928년 7월20일 함북 회령 생

▲학력:본교 정외과 및 동대학원 졸, 미 뉴 스테이트대학 정치학박사

▲주요저서 및 역서:"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문화원, 1989 "커뮤니케이션 사회학", 문화원, 1988 등 총 6권

유재봉(사범대교수·교직)

▲출생:28년 4월10일 경남 거창 생

▲학력:국립 대구사범대학 문학부 졸, 경북대학원 교육학과 졸, 일본 메이지대학원 문학박사

▲주요저서 및 역서:"교육방법", 범문사(현재 미국 콜롬비아 '연경관'도서관에 영역돼 비치됨)등 교육심리학 계통의 다수 저서 출간.

한병구(정경대교수·신방)

▲출생:28년 3월5일 함남 신흥 생

▲학력:본교 정외과 졸, 미 미주리대 신문학석사, 본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주요저서 및 역서:"언론법제론론", 나남, 1990 등

▲주요논문:"중공의 커뮤니케이션과 대중운동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배태영(외국어대교수·영문)

▲출생:28년 6월21일 경북 성주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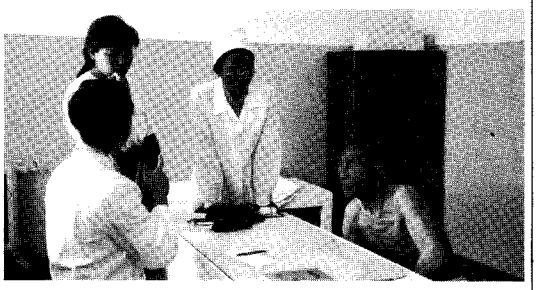
▲학력:본교 영문과 졸, 계명대학교 대학원 졸, 본교 대학원 문학박사

▲주요저서 및 역서:"현대언어학 개론", 서린문화사, 1986 "영어통사론강의", 서린, 1991 등 5권

오지에 찾아든 생명의 손길

본고는 지난 7월15일부터 29일까지 몽골 스첼바탈주에서 실시된 의료봉사 취재기이다. 한·몽골간의 유대증진과 진료활동을 통한 인류애 구현 등의 성과가 기대되는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총 33명이다.

〈편집자註〉



고원지대 풍토병 갑상선질환 횡행

주민들, 의료진 봉사와 친절에 감동해

1. 끝없는 초원

온통 풀밭이다. 버스가 지나가면 그 자리가 바로 도로이고, 비행기가 내리면 바로 그곳이 바로 활주로다.

몽골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7배, 그러나 인구는 2백20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성긴 그물 같다. 도시 지역을 벗어나면 사람 구경이 쉽지 않다. 표고 1천6백미터의 고원 국가다. 지리산 노고단 보다 1백여 미터 높은 지역에 땅과 하늘이 펼쳐져 있다.

2. 풍장(風葬)의 습성

꼭 우리나라 성황당 같은 돌무덤이 쌓여있다. 나무막대기가 중앙에 꽂혀있고 거기에 말갈기와 헝겊조각이 들려져 있다. 돌무더기 위에 말머리, 다리가 올려져 있다. 경주에서 우승한 말이 죽으면 그 말을 기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풍장(風葬)의 습성이다.

봉사활동 지역인 '다리강가'에 도착한 것은 저녁 늦은 시간, 통역소 바베큐가 준비되어 있다. 불에 달군 돌멩이를 염소의 배에 넣고 바베큐를 만든다고 한다.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한다.

3. 악전고투

첫 진료 장소인 다리강가는 몽골 동쪽 끝에 자리잡은 '스첼바탈'주에 있다. 도청 소재지인 '비룬 아르트'에서 1백60㎞정도 떨어져 있는 오지(奧地)다.

진료 첫 날, 4백여명의 환자가 몰렸다.

야채를 섭취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생긴 비타민C 결핍과 관계된 질병이 많다. 물을 컵에 따라 놓으면 아래 뿌옇게 가라앉을 만큼 석회질이 많은 식수 관계로 결석환자도 많이 보인다. 그 밖에 고원지대인 까닭에 발생하는 풍토병인 갑상선 질환도 자주 눈에 띈다.

과거 구 소련의 원조에 의존했던 탓에 소련의 원조가 끊어지자 의약품의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고 한다. 소독도 보드카로 하는 형편이며 모자 사망율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 거대한 나라의 자생력이 이 정도 일까.

4.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90년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포기하였다고 하나 우리에게는 혼란스러운 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의약품과 장비가 제 때 도착하지 않는가 하면, 약속시간에 2-3시간 늦는 것은 보통이다. 세계에서 가장 밥을 빨리 먹는다는 우리에게는 북창이 터질 일이다.

사회구조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었을까. 우리에게 진료를 받는 환자도 어쩐지 선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보다 놀라운 것은 우리 의료진의 진료하는 것을 보고 환자들이 감동어린 얼굴을 하였다는 점이다. 청진기를 대고, 가슴과 등을 누르거나 두드려 보는 것은 기초적인 것이 아닌가. 문득 몽골에 헛된 권위가 횡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몽골에서 보낸 10여일은 아름다우면서 또한 어지러웠다. 찬란식 이동 주택이 건재하는가 하면 현대식 호텔에서는 홍콩의 위성 방송이 잡힌다. 거리의 개들 때문에 외출이 통제되기도 하고 명동과 다를 바 없는 옷차림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옷을 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단적인 예는 정기스칸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환기력이다. 보드카에도 새로운 술에도 정기스칸의 이름이 붙는다. 청나라 이후 그리고 소련의 영향력 때문에 거론조차 할 수 없었던 이름을 되살려 그들의 민족정기를 다시 세우려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한나라의 발전은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채 1세기가 걸리지 않은 시간에 그 발전을 이룩했다. 우리의 경우 기껏 한세대만에 오늘에 이르렀다.

몽골을 떠나면서 아쉬움과 함께 그 초원의 정취가 깊이 가슴에 남았다. 역사의 영락이 탄재 있는 곳이기에 새삼 역사는 냉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락과 비상은 종이 한장 차이라고 할까.

조 항 순

〈의료원 기획실〉

신임 교원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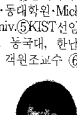
독자들의 이해와 용이함을 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범례를 정한다.
①충원학과 ②예정직급 ③전공 ④학력 ⑤주요경력 ⑥학위 〈편집자註〉

【서울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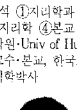
▲유원준 ①사학과 ②조교수 ③동양중세사 ④본교 사학과·중국문화대학 석사·박사 ⑤성희대·인하대 강사 ⑥문학박사

▲정연교 ①철학과 ②조교수 ③철학 ④성균관대 철학과·미시간주립대석사·토제스터대 ⑤성균관대·한양대·춘천교대 강사 ⑥철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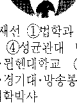
▲김해동 ①문리대 화학과 ②조교수 ③분석화학 ④고려대 화학과·동대학원·Michigan State Univ.⑤KIST선임 연구원·고려대, 동국대, 한난대 강사·고려대 객원조교수 ⑥이학박사



▲장우석 ①지리학과 ②조교수 ③자연지리학 ④본교 지리학과·동대학원·Univ of Hull ⑤청주대 조교수·본교, 한국교원대 강사 ⑥이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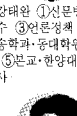


▲소재선 ①법학과 ②조교수 ③민법 ④성균관대 법학과·동대학원·뮌헨대학교 ⑤본교·숙명여대·경기대·방송통신대 강사 ⑥법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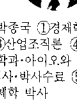


▲정완용 ①법학과 ②조교수 ③상법 ④본교 법학과·동대학원 석사·박사 ⑤원광대 전강, 조교수·파리2대학 연구교수·본교, 한국외대 강사 ⑥법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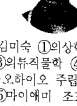
▲강태원 ①신문방송학과 ②조교수 ③언론정책 ④본교 신문방송학과·동대학원·뉴욜 보쿰대 ⑤본교·한양대 강사 ⑥철학박사



▲박종국 ①경제학과 ②조교수 ③산업조직론 ④본교 신문방송학과·아이오와 주립대 학사·석사·박사수료 ⑤본교 강사 ⑥경제학 박사



▲김미숙 ①의상학과 ②조교수 ③의류직물학 ④본교 의상학과·오하이오 주립대 석사·박사 ⑤마이애미 조교수·오하이오 주립대 방문교수 ⑥의류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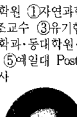
▲박준봉 ①치과학과 ②부교수 ③치주과학 ④본교 치의학과·동대학원 석사·박사 ⑤군의관 근무, 경북대 전임강사~부교수 ⑥치의학박사

【수원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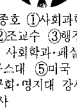
▲김종희 ①외국어대 교양과 ②조교수 ③문학평론 ④본교 국어국문학과·동대학원 석사·박사 ⑤본교·서울여대 강사 ⑥문학박사

▲이덕형 ①러시아어학과 ②조교수 ③러시아문학 ④한국외국어대 노어과·동대학원·브르도 3대학 ⑤한국외대·고려대 강사 ⑥문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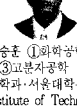
▲김학원 ①자연과학대 화학과 ②조교수 ③유기합성 ④서강대화학과·동대학원·아이오와주립대 ⑤예일대 Post-Doc ⑥이학박사



▲김종호 ①사회과학대 행정학과 ②조교수 ③행정철학 ④고려대 사회학과·페실바니아대·시라큐스대 ⑤미국 행정위원회 연구회·명지대 강사 ⑥사회과학박사



▲류승훈 ①화학공학과 ②조교수 ③고분자공학 ④연세대 화학공학과·서울대학원·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⑤제일모직 화성연구소 선임연구원 ⑥공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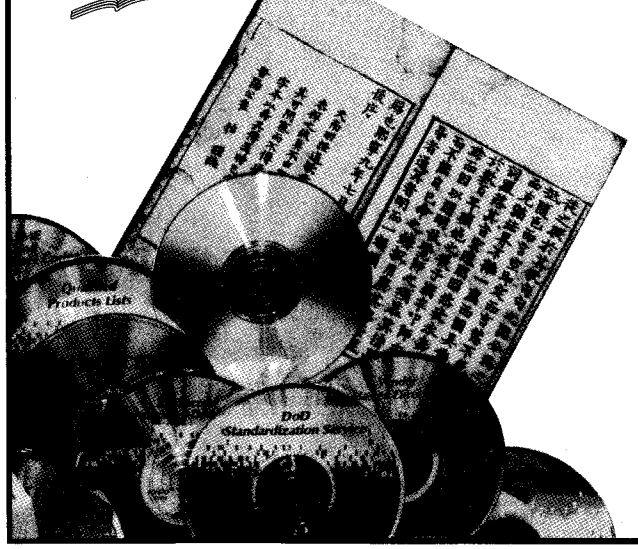


▲이영식 ①자연과학대 화학과 ②조교수 ③분석화학 ④서울대 화학과·동대학원·컬럼비아대 ⑤로렌스 버클리연구소 연구원 ⑥이학박사

▲전익기 ①태권도학과 ②전임강사 ③태권도·트래이닝법 ④본교 태권도학과·오레곤대·뉴멕시코대·박사과정중 ⑤오레곤대 태권도 코치 및 강사·오레곤주 태권도협 수석코치 ⑥체육학석사

▲이승룡 ①전자재산공학과 ②조교수 ③테이타 베이스 ④고려대 재료공학과·IIT, Chicago, Computer science 석사·박사 ⑤Go vernorrs State Univ,조교수 ⑥공학박사

'93 책의 해



溫故而知新?

하늘 천 따 지
검을 현 누루 황
훈장님의 회초리를 통해 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1년에 3만여종씩 출판되는 신간 서적들
신문, 잡지, TV…

신속하게 정리된 정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첨단의 설비가 당신을 도와 드립니다.

전통과 첨단의 만남 교보문고

교보문고는

- 총연장 24.7㎞의 서가에 15만종 150만권에 달하는 국내의 모든 서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 14개국 700개 거래처에서 수입한 7만종 30만권의 책을 외국 서적관에 갖추고 있습니다.
- 지난 100년간 구미 유명대학의 학위논문, 학술자료, 정기간행물들을 첨단 정보실에 갖추고 있습니다.
- 회원제 교보 북클럽을 운영하며 통신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 국내 각종 문화행사의 예매권을 전산망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도서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각급 연구소, 학교, 기관, 기타 단체의 도서구입 업무에 도움을 드릴 특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신학기 교재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한교육보험빌딩
☎ (대) 730-7891 (시무실) 739 2710 (도서안내) 735-6151